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5단어 끝말잇기로 풀어보기

야고보서 1:22의 비밀



이 다섯 개의 빈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여정이 숨어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길, 우리가 나아가는 길



이것은 단순한 단어 놀이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올라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지형도입니다.



죄 (sin)

[복음] : 원래 가까웠던 우리, 거대한 담장에 가로막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긴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담장'이 세워졌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놀이동산의 아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깊은 곳은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두렵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숴버. 이제 나한테 와도 돼.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담장을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 → 음성] :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순간: “빛이 있으라!”
(온 우주가 생겨남)



광야의 리더들에게:
‘아브라함아, 모세야!’



어린아이에게: ‘사무엘아!’
(밤에 세 번이나 부르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음성 → 성경] : 수천 년의 음성이 하나의 러브레터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기록은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로 모입니다.

복음

음성

성경

방향의 전환 :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음성으로, 성경으로 우리 앞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좋은 밥상이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성경 → 경청]:
내 마음의 각도를 15도 기울이는 것



“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야고보서 1:19)
”

경청(傾聽)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의 밭 진단하기

[딱딱한 돌밭]

오늘 예배
지루해

빨리
끝났으면...

말씀 들어도
어차피 난 안 변해

퐁!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튕겨 나갑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려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흙밭]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해볼게요!

[경청 → 청종]:
귀로 듣고, 발로 따라 걷다



잘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어요’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들은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청종’입니다.

진짜 믿음의 무게 중심

“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



머리로 아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엄마가 불렀을 때 즉시 대답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이 진짜 믿음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시작: 복음으로 다가오시고, 음성으로 부르시며, 성경으로 남겨주신 사랑.

우리의 완성: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삶 속에서 청종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위대한 이야기.

나의 '청종' 챌린지: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Mission Card

- [] 성경 딱 한 구절 펴서 읽기
- []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질문하며 기도하기
- [] 떠오른 것 중 딱 하나, 즉시 실행하기
(예: 엄마 말씀 잘 듣기, 친구랑 화해하기, 거짓말 안 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말씀대로 걷는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복음)에,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순종(청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